

새로운으로 민주주의 정원을 만들자!

[세션 운영 요지]

새로운 학력은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실천의 방식도 달라진다. 어찌 보면 새로운 학력은 전혀 새롭지 않은 어떤 것일 수도 있다.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응당 그렇게 했어야 하는 어떤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세션에서는 학교 안과 학교 밖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학력을 정의하고, 실천한 오늘의 사례들을 소개한다. 중요한 것은 이 세션의 운영 방식이 소위 '우수 사례' 뽑내기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션은 저명인사의 발제가 없다. 자기상찬식 발표도 없다. 토론자들과 참여자들의 거리도 최소화하려고 한다. 참여자가 토론자와 같이 경험과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최대한 확보한다. 궁극적으로 이 세션에서는 학교 안팎에서 새로운 학력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온 모두의 경험과 고민을 나눔으로써 보다 더 좋은 미래교육을 상상해 보고자 한다.

[이 세션에서 다룰 주요 질문]

1. 왜 지금 새로운 학력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2. 새로운 학력을 구성하는 핵심 키워드 혹은 역량은 무엇인가?
3. 새로운 학력을 길러주기 위한 실천의 과정과 맥락은 무엇인가?
4. 지금까지의 실천을 운동 혹은 제도로 확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